

독서텐트 또는 기억과 상상 비우라, 지우라, 문학은 단순한 하나를 선택한다

글_ 변학수 경북대학교 대학원 문학치료학과 교수

요즘 점을 보는 사람이 부쩍 늘어나고 있다는 보도를 접했다. 그런데도 점을 믿느냐는 물음에는 부정적인 대답이 늘어난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점을 보는 것일까? 그 이유는 대화의 상대자가 없기 때문이다. 점집에서 대화의 상대를 찾는 것이다. 말하자면 역술인들이 유능한 상대자가 아닌가? 더욱이 나의 운명까지도 안다는. 그러므로 우리는 환경이 우리의 마음을 읽어주고 동의해주는 상황을 점점 더 악화시킨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할머니 · 엄마 · 여자 · 아버지 · 옛날 얘기다. 만약 나의 경우가 그렇다면 어떻게 할까? 스스로 책을 잡아라.

마음의 골방에서 손전등으로 책을 읽어야

책은 충분히 그런 내 마음의 상대자가 된다. 그런데 잠깐! 그 전에 할 일이 있다. 편안한 소파에서 책이 잘 읽힌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옆에 사람이 있다는 것은 독서에 불편할 뿐이다. 치유를 위한 독서는 퇴행을 필요로 하는데 그러자면 장비 구입이 우선이다. 책과 엉덩이만 있으면 안 되나요? 천만의 말씀. 그렇다고 돈이 드는 장비는 아니다. 얼마 전 독서텐트를 쳐준 엄마가 뉴스거리가 된 적이 있는데 이미 이것은 오래전부터 알려져 있는 일이다.

필자는 이렇게 한다. 의자 세 개 이상. 담요나 홀이불, 손전등, 쿠션, 물 한 잔, 할로겐 탁상등(백열구는 화재의 위험이 있음). 의자 위에 홀이불이나 담요를 덮어 골방을 만든다. 폭신한 깔개나 방석 등으로 편안히 엎드려 책을 볼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라. 방해받지 않는 곳에 -거실이든 방이든 상관 말고- 설치하는 것이 좋다. 이미 말했듯이 마음의 치유를 받기 위해서는 깊은 마음의 골방까지 들어가는 것이 좋다. 그곳에 비밀이 있기 때문이다. 그 골방을 우리는 기억의 공간이라고 하는데 그 기억의 공간은 우리가 처해 있는 독서의 공간과 유사하여야 한다. 그래서 손전등으로 책을 읽으라는 것이다. 손전등으로라야 마음의 유편지, 기억의 창고를 잘 뒤져볼 수 있다. 나 이외에는 아무도 거기 없기 때문에 나의 상상력은 한 가지 일에만 집중하면 된다.

독서의 생명은 상상

독서의 생명은 상상(imagination)에 있다. 길버트 라일은 우리가 눈으로 헬벨린 산을 보는 순간 그 산을 상상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나 우리가 마음의 눈으로 헬벨린 산을 보는 순간 실제적이거나 그와 유사한(이를테면 영상 속의) 산을 보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영화보다도 독서가 상상력의 제공에 있어서 우세하다. 왜냐하면 영화는 내러티브 이외에도 우리에게 시각적인 것을 구체적으로 제공하기 때문에 상상력이 제한될 수 있거나 스테레오타이프화 할 수 있다.

‘누구의 주재(主宰)런가 맑고 고운 산, 그리운 만이천봉 말은 없어도...’ 라는 그리운 금강산의 노랫말을 보자. 가령 ‘그리운 만이천봉’ 이라는 말로 상상할 수 있는 금강산은 있어도 그 노랫말과 일치하는 실제적인 금강산은 어디에도 없다. 필자는 아직 금강산을 가보지 못했어도 그런 노랫말로 인해, 예를 들면 설악산과 비슷할 것이라는 경험기억을 떠올려, 금강산을 상상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산은 나만의 산이요, 내 마음의 눈(mind's eye)으로 보는 산이다.



● 이 글을 쓴 변학수는

1958년에 태어났다. 경북대학교 사범대학 졸업하고, 독일 아데나워재단 장학생, 슈투트가르트 대학교 대학원에서 문학·철학석사(M.A.)와 문학박사(Dr.phil) 과정을 졸업했다. 현재 경북대학교 대학원 문학치료학과 교수, 독일 공인 문학치료사, 독일 프리츠 페를스 연구소(Fritz-Perts-Institut)에서 임상수련(문학치료 슈퍼바이저), 독일문학치료학회 회원, 문학평론가이다. 2003년 국내 최초로 경북대학교 대학원 문학치료학과 설립했다. 저서로 《통합적 문학치료》(문학치료) 《프로이트 프리즘》(잘못보기) 《문화로 읽는 영화의 즐거움》(낯선 문학의 해석학적 미학적 경험) 《앉아서 오줌 누는 남자》(인문학과 해석학)공저, 《영화로 문화읽기》(공저) 등이 있다. 《시와 인식》《기억의 공간》(공역) 《보리스를 위한 파티》(독일문학은 없다, 릴케·헨시·시작노트) (공역) 등을 번역했다.

독서하는 순간, 우리는 우리의 경험과 기억을 바탕으로 무엇인가를, 또는 어떤 여성을, 또는 어떤 그림을 떠올린다. 가끔씩 그것이 틀리게 재현될 수도 있다. 메를로-퐁티가 Destruction을 Deduction으로 읽는다 했는데 그것은 영어실력이 모자라서가 아니다. 필자는 책을 읽을 때마다 '그리스인들은'이라는 말을 '그리스도인들은'이라고 보는 경향이 많은데 그것은 필자의 단순한 실수가 아니다. 어린 시절의 경험이 그만큼 깊이 각인되어 있다는 증거다. 우리는 그렇게 상상한다. 파트리크 쥐스킨트의 《향수》는 순전히 상상력으로 된 것만은 아니지만 우리는 그 소설의 내용이 실제적으로 일어난 일이라고 보지는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독서를 통해서 재현하는 경험은 치유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 바로 문학이 어린 시절 우리의 꿈을 충족하는 방향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독서에서 우리는 주어진 것을 다 보는 것이 아니라 보고자 하는 것만 본다.

우리가 먹고 싸면서 현실을 영위하는 것이 동물과 같다면 우리에게 기억은 존재하지 않을 것이고 기억이 없는 한 니체의 말대로 불행은 없을 것이다. 기억이 없는 한 상상은 없을 것이고 상상이 없는 한 불안은 존재하지 않는다. 《향수》의 끔찍한 사건이나 《다빈치 코드》의 서스펜스는 우리의 고유한 기억을 불러온다. 그르누이의 출생조건을 보라. 우리의 성장과 비슷하지 않는가? 소피 느비의 출생비밀을 보라. 그를 위로하고 그와 만나고 싶지 않은가. 그것이 우리의 독서를 통한 문학적 상상력이다. 우리는 그를 또는 그녀를 어디서도 만날 수 없다. 우리는 그런 나를 독서 이외에는 어디서도 만날 수 없다. 우리는 그녀를 또는 그를, 그리고 그것을 상상하는 나를 독서 텍스트 이외에는 만날 길이 없다. 그 속에서 그들의 불안과 그들의 초조를 불러와 나의 것과 맞바꿀 수 있다.

모든 것을 비우는 독서 텍스트로 들어가야

우리는 눈을 뜨고 있고 주변이 밝을 때에만 사물들을 볼 수 있다. 그러나 기억의 그림을 상상할 때는 눈을 감은 상태에서 세상이 어두컴컴해도 마음의 눈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사물들을 보는 눈은 기억에 의지해서, 즉 상상함으로써 가능하다. 마찬가지로 독서를 통한 마음의 치유도 내가 본 것이 잘못되었을 수도 있다는 가정 하에서 가능하다. 문학은 이런 오류를 상대화함으로써 우리에게 사물과 사람을 다시 볼 수 있는 힘을 제공한다. 문학은 우리가 밝은 세계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만이 진실이고 사실이라고 믿는 믿음의 체계를 바꾸어 준다. 그러니 나의 기억을 의지해 문학을 볼 수 있고 문학적 상상을 통해 나의 기억을 지울 수 있다는 역설이 성립할 수 있다. 그러나 상상은 어떤 관심과 의지가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다. 마치 독서 텍스트를 만드는 것이 독서에 대한 의지이듯 우리가 문학적 상상력을 즐기는 것도 삶의 변화에 대한 강한 의지이다. 삶이 너무 많다는 생각을 하지 않는가. 비우라. 지우라. 모든 문학은 단순한 하나를 선택한다. 정신적으로 건강하기 위해 우리는 모든 것을 비우는 독서 텍스트로 들어가야 한다. **☞**